

호남권 바이오산업 발전 '한 뜻'

도, 서울 코엑스에서 초광역협력 호남권 기업 유치 선포식 재활·복지 전시회 참가 및 초광역협력사업 전시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권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과 함께 힘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과 함께 초광역 협력으로 호남권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공동 선포식을 2024

호케어·재활·복지 전시회를 통해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초광역권 발전을 목표로 반영된 과제인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부터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지원을 모색하고 사업화 의지를 표출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비롯해 사업수행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대 메카노바이오기술융합연구소,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병원, 전남바이오진흥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해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호남

권 기업유치 공동 선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또한,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부터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사업단은 2024 호케어·재활·복지 전시회 내 공동 전시관을 설치해 6일까지 초광역권 협력사업추진 목적 및 비전을 홍보하고, 각 지자체별 대표기업 우수제품 전시를 진행했다.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부터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호남권역 내 기능적, 공간적 초광역 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단일 지역 보유 인프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의료헬스케어부터 제품의 전주기 신속상용화 문제해소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시장 진출 거점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전자기기 중심, 전라남도는 소재 중심, 광주광역시는 비전자기기 및 제품 중심으로 연계 협력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획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국내 상황을 고려 했을 때, 노화질환에 특화된 의료헬스케어부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관련 산업 기반이 충분한 호남권에서, 초광역 협력 공동기업 유치 선포식을 계기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하는 모델이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과 함께 초광역 협력으로 호남권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공동 선포식을 2024 호케어·재활·복지 전시회를 통해 개최했다.

'우리 건강, 치아 행복에서부터'

전북자치도, 9일 구강보건의 날 맞아 홍보 나서

전북자치도가 오는 9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 보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올해로 79회를 맞은 구강보건의 날(6월9일)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첫 영구치인 아기가 나오는 시기 6세의 '6'과 어금니(臼齒, 구치)의 '9'를 숫자화해 영구치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구강보건의 날을 알리기 위해 6월 3일부터 9일까지 구강보건 주간으로 정하고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표어(슬로건)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 및 14개 시군은 구강검진 및 구강 위생용품 제공, 구강 위생용품 전시 및 사용법 안내,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자체 행사를 추진한다.

구강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오래

지속되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보이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등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습관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여 독일에 유학 당시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치과에 다녀왔다고 하는 전북대 법무대학원 S모 교수의 이야기를 수업중에 들었는데, 우리도 치아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도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함께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노인인치(틀니)사업, 전북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구강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나선다

27일, RISE 시범시·도 중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첫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취업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RISE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위촉서를 추진했고, 전북 등 5개 지자체를 확정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전주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선정하고,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전북자치도-전주대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한국연구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JB지산협력단)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F-2-R) 허용업종 및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25개 전북지역 우수 기업과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등이 참여해 600여 명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현장 채용을 위한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1대1 면접 △입사지원서 작성 지원 △이력서 즉석사진 촬영 등이 지원되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비자상담을 △전북은행이 금융을 △행정사·노무사협회가 취업·노무상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매칭플랫폼(<https://job.kosmes.or.kr>)을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공고를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접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졸업생)은 QR코드로 사전등록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 이력서를 지참하면 된다.

나혜수 전북자치도 교육교통협력국장은 "이번 전북자치도 취업박람회를 통해 도내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동물사체처리기 신고 간소화

중앙·도·시군 관련부서 협업 농가당 연간 447만원 처리비 경감

폐사 가축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가 전북자치도의 적극 행정으로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절단, 분쇄, 건조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대기·토지오염 등의 문제가 있



어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응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아연·구리·탄화수소·질소산화물·HCl·아닐린·벤지딘·하이드리진)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폐수 또한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대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전북 자치도는 지난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가 더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전북 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 기관인 전북 녹색 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가 동물사체처리기에 처리 대상 물질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 항목(아연·구리·탄화수소·질소산화물·HCl·아닐린·벤지딘·하이드리진)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폐수 또한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대

기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를 처리시설에 대해 신고만 하면 된다.

해당 시설이 가금류, 양돈농가 등의 방역시설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농가당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47만원(가금 및 양돈 1.216호 사용 시 58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승인받은 동물사체처리기에 대한 사용이 확대되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경감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동물 사체 불법 투기 방지, 악취 등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낭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